

잊어버린 名藥 경옥고(瓊玉膏)를 생각한다.



글/ 김무열 평화방송 편집위원

경옥고(瓊玉膏)는 세계적인 명의(名醫) 許浚先生의 동의보감에서 유래된 동양최고의 強壯? 強精의 補藥이다.

우리나라는 멀리 단군시대로 부터 약물의학이 중국을 앞서고 있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기에는 三神山과 不死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삼신산은 태백산이며 불사한약은 不死之藥草로 이 약초는 영애(靈艾) (쑥의 일종)과 영산(靈蒜) (마늘의 일종)으로서 능히 起死回生の 힘이 있으며 이 不死之仙藥을 복용한 단군 할아버지가 근 이천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기록 拾遺記에는 사천년전의 단군시대에 고조선에서는 중국의 어떤 藥物書에도 없는艾나 蒜을 약용으로 사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陶弘景(456~536)의 神農本草經에는 11종의 고구려의 약물 중 특히 인삼과 금설(金屑)에 대하여 유명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금설은 유독하여 정련(精鍊)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죽지만 고구려의 금설은 잘 정련되어 먹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瓊玉膏는 고려인삼을 주재료 하여 복령(茯苓) 지황(地黃) 꿀 등으로 제조한다. 경옥고는 동의보감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처방으로서 不老長生の 선약개발(仙藥開發)사상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것이 경옥고라 할 수 있다. 경옥고는 원료사정으로 대량 생산이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국내 몇 군데 제약회사에서 경옥고를 제조하고 있다.

옛날의 경옥고는 왕실이나 양반 고관대작들의 귀족사회에서만 먹는 補藥으로 알려져 있다.

本草綱目에는 인삼과 복령을 생지황(生地黃)과 함께 달여 혈허(血虛)에 복용한다고 했다. 또 虛損이라는 것을 氣虛·血虛·精虛 五藏의 虛·虛熱·虛寒으로 구분했다.

洪氏集驗方에 의하면 철봉선생의 神仙祖法에 있는 경옥고는 新羅人蔘(山蔘이나 長腦蔘을 뜻함)24양·生地黃 16斤 白雲茯苓 40양·白沙蜜 10근으로 제조한다고 기록되

어 있다. 또 壽世保元에는 回老用 경옥고의 원료는 인삼 12양·眞懷生地黃 10근·白茯苓 24양 白沙蜜 5근으로 되어 있다. (1兩=37.5gr)

동의보감에는 경옥고는 養性延年하는 보약으로 眞精·補髓·調性·返老·還童하며 百損을 보하고 百病을 제거하고 萬神이 한가지에 족하고 오장이 건전하고 백발이 검어지고 빠졌던 치아가 다시 나고 바른 말과 같이 달릴 수도 있고 하루에 두번만 먹으며 하루종일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지 않으며 그밖에도 그 공효(功效)는 다 말할 수 없다. 한제의 1/5를 먹으면 만병을 고치고 1/10을 먹으면 고단하지 않고, 27년을 먹으면 360세를 살고 64년간 복용하면 5백세를 살 수 있는 천하의 補藥이라 했다.

이 경옥고가 천하의 명약이라는 소문이 중국까지 傳波되어 明나라의 신증은 태의원(太醫院) (王室醫·局) 會義를 열고 경옥고에다 天門冬, 地骨皮 각 8兩을 넣어 이것을 익수영진고(益壽永眞膏)라 이름짓고 回春의 秘藥이라 하여 왕후귀족(王侯貴族)에만 먹었다고 한다.

제중신편(濟衆新編) (卷2 內傷·內局首醫 康命吉 지음)에는 枸杞子·天門冬·麥門冬·末各 1근) 益壽永眞膏라 하여 지골피(地骨皮)와 구기자가 配合되어 있다.

경옥고를 복용 할 때에는 하루 2~3회씩 한두숟갈씩 온주(溫酒)에 타서 복용하고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온수에 타서 먹는다.

경옥고를 다려 만들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닭이나 개의 짚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淨地에서 지어야 하며 땀나무는 뽕나무가 좋다고 하였다. 이것을 제조 할 때에는 특히 생지황을 밭에서 채굴 즉시 생즙을 내어서 가공하여야 함으로 대량생산이 어렵다. 그러므로 경옥고는 소량을 정성껏 고아서 잘 아는 사람끼리 나눠먹었다. 사실에 있어 瓊玉膏를 대량으로 제조한다는 자체가 옛날의 전통적 瓊玉膏 제조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다분히 공업적으로 가공

되고 있을 것이므로 일반시민들이 경옥고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지지 않아 경옥고를 믿고 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瓊玉膏 제조업자는 신용과 전통을 바탕으로 경옥고를 제조하여야 할 것이다.

보관 방법으로 더운 여름철에는 어둡고 시원한 곳이나 혹은 물속에나 땅속에 보관하여 상인(喪人)이나 닭·개 등의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경옥고 제조시에는 시종 노그릇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파·마늘·무우나 식초 같은 것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方藥合編에는 경옥고 제조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生地黃(16근 10kg)·人蔘蔘(24양 1kg)·白茯苓末(48兩 3kg)·白蜜煉(6kg)을 섞어 옹기 항아리에 넣고 유지 다섯겹과 厚布 한겹으로 구멍을 단단히 봉하고 이것을 다시 銅鍋에 넣고 그 새간에 물을 붓되 물이 끓어도 항아리로 넘지않을 정도로 붓고 뽕나무 불로 3주야를 끓이는데 만약 그안 새간의 물이 줄어들거든 더운 물을 여러 번 부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끓이는 기한이 다 되거든 항아리를 집어내어 다시 蠟地로 항아리 구멍을 단단히 봉한뒤에 우물속에 하룻밤동안 달아매어 두었다가 끌어올려 다시 동과에 넣어 전과같이 하룻밤을 끓이면 완성된다. 먼저 조금 꺼내어 천지신명에 기도를 드린 후 1일 2~3회 매회에 1~2수저씩 온주(溫酒) 복용하는데 술을 못먹는 사람은 白湯으로 한다. 닭과 개우는 소리와 부인 상복입은 사람을 봐서는 안된다.

- 一方에는 호박과 심향(沈香)各오전(5 錢) (20g)을 가한다.
- 天門·麥門·枸杞子 각 1근(600g)을 가하면 益壽永壽膏가 된다.
- 또 一方에는 天門·麥門·地骨皮 각 8양(300g)을 가하기도 한다.

(上統處方)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強壯·強精劑로 경옥고를 信川藥品研究所 山之內商社株式會社에서 제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둥(廣東)제약에서 제조하고 있다.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사람, 奏孝之介가 日本國部眞郡丸子町 754번지에서 생지황과 칠년근의 인삼을 경작하면서 경옥고를 정성껏 제조하고 있다. 그가 경옥고를 만들게 된 동기는 奏씨의 형이 어떤 도사와 강원도의 설악산에 1년간 입산수도를 하고 하산 할 때 경옥고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항아리 한 개만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에 경옥고에 대한 감명을 크게 받고 20살 되던해부터 혼자 만들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가 일본에 건너가 경옥고를 만든 역사가 50년이 된다고 하며『경옥고에 반하여 50년』이라는 책자도 발간했다. 이와 같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경옥고는 유명하다. 경옥고는 결코 크게 선전하거나 매스콤을

타지않는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경옥고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애용한다고 한다. 내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부갓집 아이들에게는 대개 경옥고를 먹었는데 나도 5형제분의 경옥고를 혼자 다 먹어치운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요사이에는 경옥고를 망각하여 50대의 부인들도 경옥고를 아는 사람이 드문 형편이 되었다. 요사이 한 의사들은 으레히 어린아이들에게나 노인에게 녹용을 권한다.

녹용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세계 녹용의 전체 소비량의 70~80%을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 그만큼 한약방에서 녹용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수많은 녹용이 전부 진짜일수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녹용이야기는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자.

人蔘의 주산지 금산에 가면 三南化學研究所라는 역사가 오래된 약품제조회사가 있는데 사장은 金順基씨이다. 그는 일제시대에는 동경대학 약학대학을 졸업한 학자이다. 그가 30여년 전에 고향인 금산에서 처음으로 경옥고를 제조했는데 그후 약업사업이 번창하여 이십년전에 지금의 금산배 경옥고 사장인 鄭雄來씨에게 인수했다. 김순기(金順基)씨는 어떻게 꼼꼼한 사람인지 팔난데 팔나고 콩난데 콩난다는 식의 고지식한 학자이며 그 밑에서 오랫동안 제약기사로 일하던 정웅래(鄭雄來)사장도 같은 성질의 사람이다.

필자는 금산배(錦山倍)경옥고를 창립한 김순기? 정웅래 사장을 한자리에서 만나 여러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공장도 구석구석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일이 있다. 그는 무리하지 않고 재래식으로 적당량만 생산할 뿐 어떤 선전이나 광고도 원치 않고 있었다. 그는 人蔘의 고장 금산에서 제조되는 금산배 경옥고가 전통과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입에서 입으로 선전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말없이 우리 경옥고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정말 경옥고는 어린아이나 허약한 부인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약이다.

얼마전 鄭雄來社長の 요청에 의하여 금산공업공단내에 KGMP 한국우수의약품관리규정에 의거 새로 건축한 깨끗하고 아담한 금산인삼제약사(錦山人蔘製藥社)인 금산인삼배경옥고 제조원(錦山人蔘倍瓊玉膏製造元)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三代에 걸쳐 경옥고만 제조하고 있는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옥고 제조의 장인(匠人)이다.

傳統民俗健康약품인 錦山倍瓊玉膏이 命脈이 오래도록 유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초가을의 아름다운 人蔘의 고장 錦山을 뒤로 하였다.

지금은 잊어버린 명약 경옥고를 생각하면서... 